

庭苑的 遺構로 조명한 부안 竹幕洞 祭祀遺跡

김흥균* · 박윤희** · 노재현***

*벽성대학 조경과 · **전북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I. 서론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제천 의식을 베풀었다. 옛 기록에 등장하는 부여(夫餘)의 영고(迎鼓)와 고구려의 동맹(東盟) 그리고 예(濊)의 무천(舞天)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대근, 2009). 특히 국가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면서 국가경영과 관련 있는 제례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사직이나 종묘와 같은 제사유적이 생겨났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사회에는 마을 주민들의 무병안녕, 다산과 풍요, 풍어 등을 기원하는 제사터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 강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제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적을 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1991년 12월 유적분포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리 죽막동(竹幕洞) 유적은 이듬해 국립전주박물관 주도하에 발굴조사를 거쳐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제사유적으로 학계에 공식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적은 발굴 당시 ‘문화재 발굴의 켜기’란 평가와 함께 국내의 언론에 대서특필(大書特筆)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학술적 관심 부재 등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은 고사하고 제대로 보존조차 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무속인들에 의한 절벽 훼손을 비롯하여, 주차장과 목책 설치 등으로 유적지 훼손이 가시화되어가고 있으며, 오물 투기와 주변 식생관리 소홀 등으로 공간 원형의 확보는 물론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제사유적 가운데 최고(最古)로 손꼽히는 규슈 오키노시마(沖の島) 유적의 경우,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점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해안에 입지한 국내 유일의 고대 제사유적으로 해안 풍광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원(神苑)으로서의 공간성과 성림(聖林)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마땅히 정원유적으로서의 특성과 가치가 깃들여 있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조경분야 특히 전통조경분야에서 죽막동 제사유적은 지역의 전문가에게조차도 생소하고 낯선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의 공간특성 및 장소성 그리고 경관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변 영향권의 조망경관적 특질

의 논의를 통해 이 유적의 정원적 면모와 특성 및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더 나아가서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II. 연구의 기본 전제 및 시각

높은 산이나 돌출한 언덕은 건국신화 속에서 천계로부터 신이 강림하는 자리로 여겨졌고, 이곳은 높은 산악이 주는 경외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착상이자 산악신앙과 산신사상의 태동지이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확실히 고증된 고대 제사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적을 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금동대향로가 출토된 바 있는 충남 부여 능산리 유적이 제사터였다는 국립부여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는 매우 신선하기까지 하다.

민덕식(2003)은 백제시대 제사유적으로 부안 죽막동 유적을 비롯하여 서울 풍납동 토성유적, 공주 송산리 방단형 제사유적·공산성유적·정지산유적 그리고 부여 추정 왕궁지(관북리)유적·궁남지유적·논치리유적 등을 들었다. 또 이들 유적의 발굴 결과를 정리하여 제단을 비롯하여 제각, 廢殿, 堅穴 등을 제사시설로 들었다. 한편 최몽룡(1994)은 역사시대와 들어와 백제시대 제사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부안 죽막동 유적 이외에 송산리 개로왕의 가묘(문화재연구소, 1988)와 부여 능산리의 건물지(부여박물관, 1994)를 들었으며 이외 제주시 용담동(제주대박물관, 1992)의 제사 유적을 들었다. 전북대 고고학과 윤덕향 교수는 죽막동 제사유적이 “마한시대부터 해양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고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 가운데 가장 크고 유일한 것”임을 강조하는 등 국내외 학자들은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이 제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에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고고학자이자 세계 동아시아 고고학회장이기도 한 Sarah M Nelson 교수는 죽막동유적을 “거대하고 색다르며 아주 고고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유적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일본 오키노시마 해양 제사 유적처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발 빠른 대응은 죽막동 제사 유적의 보존 및 인류문화유

산적 가치 제고를 깊이 인식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으로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같이 죽막동 유적의 고고학적 견해와 인식을 기저로 본 연구는 죽막동과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 주민 인터뷰 그리고 현장 관찰연구 등을 통해 제사유적이자 정원적 유구로서의 죽막동의 장소성과 경관조망성 그리고 주변 해양경관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I. 죽막동유적의 장소성과 공간성

죽막동 제사유적은 고대에 바다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해신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유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원거리 항해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유적으로 특히 백제시대부터 선박들의 안전항로를 기원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변산반도의 격포진과 위도진 사이를 바다의 문, 즉 해문(海門)이라 하였다. 이는 변산반도 앞을 지나는 모든 배들이 죽막동 제사유적에 거처게 된다는 관행적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죽막동유적은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실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해양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특히 고대의 제사의식을 규명할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오끼노시마유적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일본의 오끼노시마와 흡사한 유물의 출토는 죽막동 유적이 일본 견당선이 중국으로 갈 때에 경유하였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죽막동(竹幕洞)이라는 지명은 대나무가 장막(帳幕)처럼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대죽(大竹)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는 시누대(조릿대: *Sasa borealis*)가 많이 자라는데, 예전에는 전투용 화살 제작을 위해 이곳 대를 베어 중앙으로 수송하였으며, 이곳 대밭을 관전으로 관리하고 대를 베어 저장하는 막(幕)이 있어 이 마을이 대막골 또는 죽막동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적벽강 일대는 시누대 외에도 후박나무 자생군락(천연기념물 123호: 그림 1-c)이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다. 표인주(1998)는 죽막동 유적을 다층적 기능을 지닌 일종의 공동체신앙의 장소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동체신앙의 제당은 산정에서 산중으로, 그리고 다시 산하로 이동하여 급기야는 동네 앞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죽막동에 위치한 수성당 또한 원래는 해신당과 산신당 등의 기능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 왔지만 당집이 지어지면서 통합 제사유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죽막동의 유적의 출토유물을 근거로 수성당(水聖堂)의 원초형태는 고목을 신체로 삼은 노천제사장의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주목(宇宙木)으로서 지표(指標) 식재를 하거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때 중심목은 주변 자생수목 중 활용이 가능한 팽나무 등의 고목을 보존 활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후대에 당집을

세우면서 신경(神格)과 신체(神體)를 합위(合位)하게 되고, 신체도 인공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죽막동유적의 경관성

죽막동은 서해안의 해변으로 돌출된 지형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조성되어 있으며, 바다에 접한 암벽 말단위에 해신(海神)을 모시는 수성당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당굴(堂窟)이 있다(그림 1a). 그러나 형국으로는 당굴로 수성당이 들어선 형상이어서 따라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변굴(海邊窟)로 밀물 때에는 바다물이 깊숙하게 들어와 출렁거린다. 당굴은 바다 쪽에서 보면 바다로 향한 암벽 가운데가 좁게 세로로 갈라진 모습이나 안쪽에서 보면 아찔할 정도로 당굴의 위가 특 트인 절벽의 깊은 타원형 암굴이 뿔려 있다(그림 1-f). 매년 봄이면 고기잡이배들이 이곳에 와서 뱃고사와 배치기를 지냈던 곳으로 당굴 주변에는 타원형의 신우대와 곰솔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해상 안전항로를 기원하는 제사처라는 장소정체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여기에 죽막동 제사유적지에서는 철제유물이 출토하였음을 근거로 군사적인 전략기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본다. 더불어 죽막동 유적의 입지상 바다에 돌출하여 일망무제한 서해바다의 조망 최적지이자 해양방어체제의 중요한 공간일 수 있다.

한편 죽막동 일대에는 칠산 앞바다의 수신에 관한 전설로 개양할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개양할미는 주민에게 풍어와 안녕을 가져다주며, 때로는 여울굴이라 일컫는 용굴에 딸과 살면서 칠산 앞바다의 여러 섬에 자기 딸을 배치하여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에 철마를 타고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설은 개양할미가 용신으로서 칠산 앞바다를 관장하는 수호신이며, 풍어를 가져다주는 수신(水神)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수신으로서의 개양할미는 바다와 육지를 거래하는 방문신(訪問神)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바다에 대한 다양한 믿음과 신화의 습합과 융합의 결과로 보인다. 제사유적 옆에 위치한 수성당이 원래 개양할미의 처소였으며, 당굴에 수성당할머니가 산다고 믿어왔다.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노천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단절되면서 그곳에 개양할미를 봉안하는 수성당으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 현재는 해양제사유적 위에 해양제사의 신당이 들어섰으며, 그 신당에는 변산반도의 앞바다를 지켜주는 해신들이 봉안되어 있다.

V. 죽막동 제사유적의 정원적 가치

죽막동유적의 내적 가치는 고대 제사 유적으로서의 장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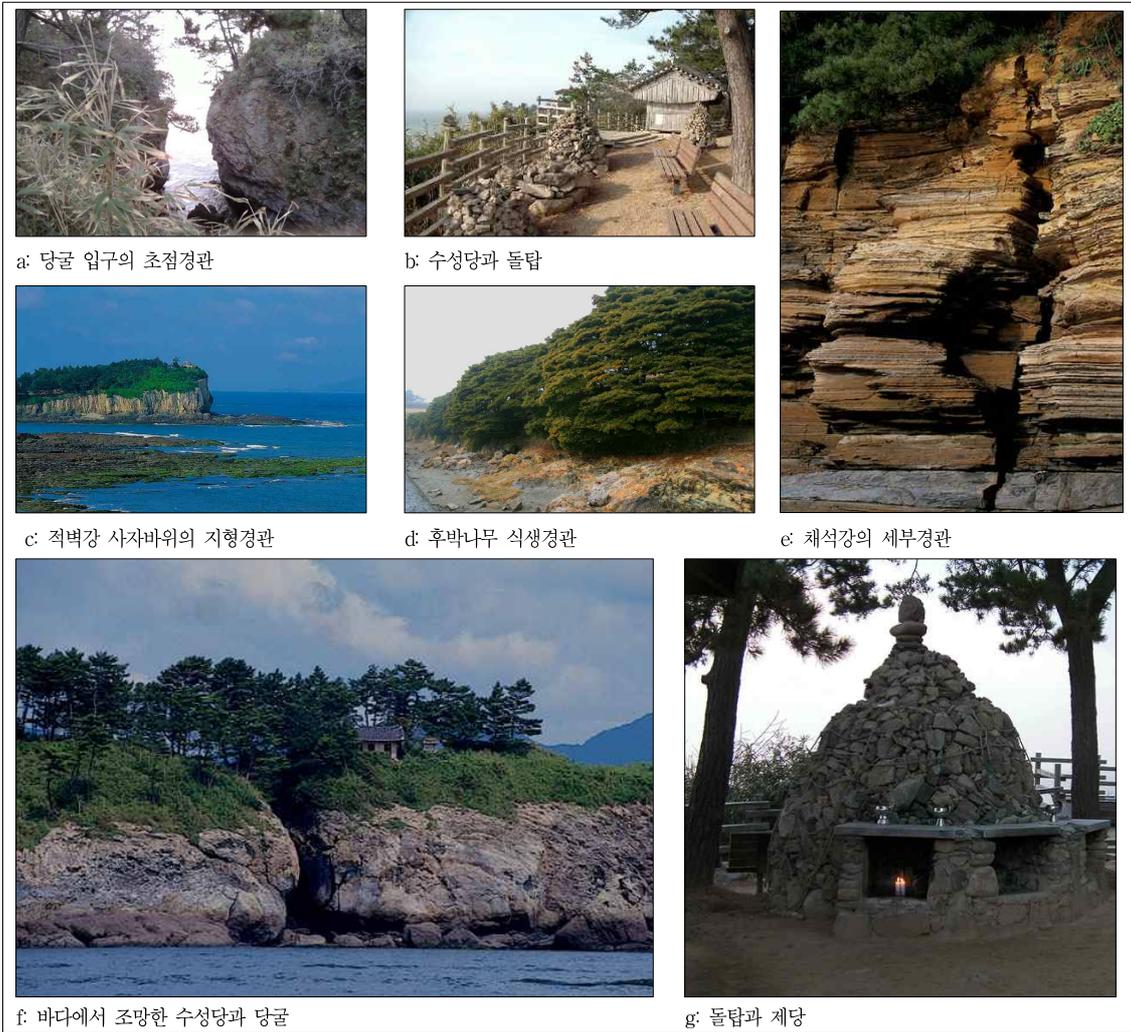


그림 1. 죽막동 제사유적의 始原的 景观 요소들

속성과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숭고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승경처라는데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요인은 주변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경관요소와 용굴과 개양할미 등 전설과 신화 등의 의미경관적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죽막동유적에 현재 남아있는 수성당과 당굴, 돌탑과 제단 그리고 주변의 고목들은 오랜 시간 변모된 제사유적이자 오래된 정원의 편린(片鱗)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일정한 시간에 걸쳐 한·중·일 한 문화권 내에서 해상안녕과 관련된 결과로 파생된 영향력 있는 정원적 유구가 바로 ‘죽막동 제사유적’인 것이다. 더불어 주변 적벽강(赤碧江: 그림 1-c)과 채석강(採石江: 그림 1-e)이라는 국가 지정 명승(名勝 제13호: 扶安 彩石江·赤壁江 一圓)과 희귀 식물군락의 분포는 주변으로의 연계경관의 구축 및 탐방루트 개설을 통한 관광 흡인력 강화에 매우 고무적 요소이다.

죽막동유적은 현재까지 입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제사유적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수준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제사유적으로 홍보되고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세부적인 고고학적 발굴시 정원적 유구의 흔적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통정원적 공간과 시설로서의 죽막동 유적을 조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외적으로는 훼손 및 시설 추가로 인한 물리적·시각적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지 등의 국가 문화재로의 지정이 요망된다. 그 이후 주변 명승인 채석강과 연계한 해양경관지구로 보전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일본 오키노시마 해양 제사 유적처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대응전략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오키노시마 유적지와의 연계성을 부각시켜 한·일 공동 대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략의 추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국립전주박물관(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國立全州博物館 學術調査

- 報告; 1.
2. 국립전주박물관(1998a)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開館五周年紀念 學術심포지움 論文集.
 3. 국립전주박물관(1998b)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고고민속학적 고찰. 開館五周年紀念 學術심포지움 論文集.
 4. 김주성(2003) 죽막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만에삼존불. 한국상고사학보 40: 57-75.
 5. 노재현, 김상범, 성은숙, 한상엽(2009a) 濟州 山川壇 곱솔림의 가치와 생육환경 개선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1-9.
 6. 노재현, 신상섭, 이상훈, 김상범(2009b) 濟州 山川壇의 新苑, 聖林的 價値와 意味.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29-39.
 7. 민덕식(2003) 發掘調査資料로 본 百濟時代의 祭祀遺蹟. 史學研究 1-76.
 8. 박승범(2003) 한성시대 백제의 국가제사. 韓國古代學會 先史와 古代 19: 107-124.
 9. 부안문화원(2001) 부안의 문화유산: 비지정문화재총람. 부안: 부안문화원.
 10. 송화섭(2008)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 22: 81-106.
 11. 유병하(1997) 扶安 竹幕洞遺蹟의 海神과 祭祀 -제사양상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강렬(2001) 百濟馬具에 대한 檢討. 公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3. 이대근(2009) 한국 고대 제천의식에 담긴 종교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복음과 문화 13: 128-156.
 14. 이윤선(2007) 해양문화의 프랙탈, 竹幕洞 水聖堂 포지셔닝. 목포대학교 島嶼文化 3: 85-129.
 15. 중산청용(1996) 扶安 竹幕洞祭祀遺蹟과 湖南地域의 古代文化. 전주사학 4: 351-362.
 16. 최광식(2006) 백제의 신화와 제의.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 27. 서울: 주류성.
 17. 최몽룡(1994) 백제의 제사유적. 한국상고사학보 17: 491-495.
 1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07) 百濟의 祭儀와 宗教. 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13. 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9. 표인주(1998)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고고민속학적 고찰. 비교민속학 15: 285-311.
 20. 표정훈(2006) HD 역사스페셜. 2. 적자생존, 고대국가 진화의 비밀. 파주: 효형출판.
 21. 한영희(1992) 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發掘調査進展報告. 고고학지 4(92.12): 135-173.
 22. <http://cafe.daum.net/sunsastory>
 23. <http://inoues.net/ruins/okinoshima.html>